즉시 보도용

2025년 11월 19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2028년 패럴림픽 개막 **1,000**일 앞으로…

배스 시장, '모두를 위한 접근성' 실현을 위한 시의 준비 상황 강조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2028년 패럴림픽 개막 1천일을 앞두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 대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LA28 조직위원회는 이날 2028년 패럴림픽 종목별 경기 일정 미리보기를 공개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다. L.A.는 최초로 패럴림픽을 개최하게 되며, 패러클라이밍이 패럴림픽 종목으로 데뷔, 역사상 가장 성평등한 선수 쿼터를 갖춘 패럴림픽이 될 예정이다. 2028년 패럴림픽 개회식은 8월 15일(화) 오후 5시 SoFi 스태디움에서 열리며, 폐회식은 8월 27일(일) 오후 6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개최된다.

배스 시장은 "천일 후면, 로스앤젤레스는 사상 첫 패럴림픽을 개최하며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된다. 이번 대회는 무대에 오르는 여성 선수 비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보여줄 놀라운 기량과 투지를 함께 축하하고, LA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그 순간이 정말 기다려진다."고 강조했다.

레이놀드 후버 **LA28**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 선수와 팬, 커뮤니티가 함께 스포츠와 회복력, 인간의 잠재력을 기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패럴림픽 개막, 1천일 전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맞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경기 일정은 '선수 중심' 접근을 반영해 LA 전역에서 펼쳐질 잊지 못할 경기 순간들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장애가 있는 앤젤리노들을 위해 지속적인 유산을 남기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패럴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굵직한 조치를 취해왔다.

-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 35주년을 맞아, 배스 시장은 '패럴림픽·올림픽 개최도시 접근성 약속문(Host City Accessibility Commitment)'에 서명해 접근성을 대회 준비와 유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공식화했다.
- 최초의 '접근성 최고책임자(Accessibility Chief)'를 메이저 이벤트국(Office of Major Events)에 임명하고, 접근성 관련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대회 접근성 계획(Games Accessibility Plan)'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 LA28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1**억 **6**천만 달러 투자 덕분에, PlayLA 프로그램은 시 전역의 어린이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적응형(Adaptive) 스포츠를 제공하고 있다.
- 배스 시장은 '모두를 위한 대회(Games for All)'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집행명령 16호(Executive Directive 16)를 발효해, 교통·접근성·안전 등 2028년 대회 이동 경험을 책임지는 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했다. 여기에는 장애인부(Department on Disability)도 포함된다.
- 건축안전국(DBS), 장애인부, 메이저 이벤트국은 시 내 각종 임시 이벤트와 행사 장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 시는 장애인 채용·고용·유지 확대를 위한 부서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애인의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청 조직문화 전반에 장애 인식 개선을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시 장애인부와 브레이유 인스티튜트는 시청 내 올림픽·패럴림픽 깃발 설치물에 점자 번역을 적용하는 등 접근성 향상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